

# 인구는 수(Number)가 아니라 인간(Human)에 대한 관심이다

편집실

세계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으로 이미 저출산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제 출산력 억제를 목표로 한 가족계획 사업에서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한 생식보건 사업으로의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인구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세계 인구도 마찬가지다. 세계 평균 출산력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세계 인구 증가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50년에는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1950년 이래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평균수명이 늘게 된 것이 인구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인권 신장을 위해 소자녀를 갖는 추세에 있으며 자신들의 원하는 자녀의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가족계획 서비스를 활용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볼때 1억 5천만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 임신을 예방하고 늦추기를 원해도 가족계획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전세계의 인구 증가는 최빈민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HIV /에이즈 감염이 심각한 국가들은 사망률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인구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는 더욱 많이 증가하여 한 어린이 당 노인 인구가 2명 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기 때문에 노령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인구 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비롯

인구증가율은 같은 지역 국가간에도 크게 다르다. 실질적으로 모든 인구 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유럽, 북아메리카, 일본은 인구증가가 둔화되거나 거의 안정 상태에 있다.

선진국 지역에서는 50년 동안 변동이 없고 오히려 줄어들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2050년 약 82억 명으로 향후 50년 동안 3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가족계획 서비스 활용을 통해서 출산율을 줄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식량생산이 감소되고 국민소득이 정체되면서 보건관리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성병, HIV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지는 등 지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생식보건관리 및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실제로 가족계획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과 높은 수준의 교육은 인도 남부지역이나 스리랑카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AIDS... 전체 감염 95%가 개발도상국

HIV /에이즈 감염도 세계 전체 감염인구의 약 95%가 개발도상국 주민이다. HIV /에이즈 감염은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인구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출산율에 의해서 인구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감염이 심한 45개국의 평균수명이 3년이나 줄어들었다. 빈곤, 빈약한 자원으로 감염률은 계속 증가되고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차별에 의해서 여성이 강간 등 성적학대와 더불어 HIV /에이즈 감염 위험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모자 보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전체 보건관리와 사회제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 개발도상국 인구정책 지원 필요

1994년 카이로 국제 인구개발회의에서 향후 5년간 성/생식보건 증진, 모성 사망 감소, 청소년 생식보건 필요성, 불안정한 인공임신 중절의 문제, HIV/에이즈 예방, 성문제에 따른 교육 증대 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계획의 욕구가 증가하므로 이에 2015년까지 기초보건관리 및 효율적인 가족계획 방법, 산과 관리, 성병예방 방법 제공 등 가족계획 서비스, HIV /에이즈 예방을 위한 예방 사업 등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생식보건에 관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지원은 아직 충분치 않다. 통계상 개발도상국

여성의 60%가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출산율이 1950년 이래 절반으로 떨어져서 인구의 양적 증가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인구 문제는 수(Number)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Human)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경제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21세기 새로운 과제로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정책 문제는 앞으로 다국적 국가간 가족계획 사업이 아니라 포괄적인 생식보건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NGO 협력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현실에 부합된 체계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 나라의 가족계획 사업은 경제 사회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외국 및 국제기관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는 그동안 받은 원조의 보답으로 40년 동안 축적된 성공적인 가족계획 인구 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이제부터는 개발도상국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PFK

\* 출처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 보도자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구 문제와 국제협력 - 한국의 역할